

갈라디아서를 성경에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쁨과 자유로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를 대하는 성숙한 모습이 있고, 미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할례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4절)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더 얻어낼 수 있다는 율법주의는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2~4절)

율법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지거나 은총을 얻어내려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율법주의는 나만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누룩과 같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8~12절)

우리는 어떻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통해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를 성숙하게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 줍니다.

첫째, 은혜를 기억하며 자유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1절)

1절에서 바울은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자유를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야기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표준 새번역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노력하여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후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게 하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자유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5절)

5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될 것을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자유 가운데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세우실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 생활과 영적 훈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권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셋째, 사랑으로 섬기며 자유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6, 13, 14절)

본문 13에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고 금방 또 다시 종노릇 하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종노릇 하라는 원어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섬기다,’ ‘섬기는 사람이 되다’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서 자유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자유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육체의 기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심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 율법의 정신입니다.(14절)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5/2(월)	5/3(화)	5/4(수)	5/5(목)	5/6(금)	5/7(토)	5/8(주일)
왕하7-8	왕하9-10	왕하11-13	왕하14-15	왕하16-18	왕하19-20	왕하21-23

QT

이번 주 QT 말씀

5/2(월)	5/3(화)	5/4(수)	5/5(목)	5/6(금)	5/7(토)	5/8(주일)
고전 1:10-17	고전 1:18-25	고전 1:26-31	고전 2:1-9	고전 2:10-16	고전 3:1-15	고전 3:16-23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은혜 아래 있는 것과 율법 아래 있는 것, 즉 율법주의와 은혜의 복음의 차이를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3. 자신이 은혜 아래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세요.